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 희 숙(단국대학교 박사과정)
이 수 정(단국대학교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고교 간 격차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 하는데 목적을 두고, 중소도시인 A지역을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후에 그 이전과 비교하여 학교 간 성적 격차, 학교 서열 및 지원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4~2017학년도 기간 동안 A지역 내 전체 일반고의 입학성적과 학교 지원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비평준화시기였을 때 고착화되어 있던 학교 서열은 정책 도입 직후에 크게 변동되었으며,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는 정책 도입 직후에 갑자기 커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격차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은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간 성적 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성적의 위계에 따라 고착화되었던 학교 서열을 변동시킴으로써 고교 간 격차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고교평준화 정책, 선지원후추첨제, 학교 간 성적 격차, 서열, 학교 지원율

I. 서 론

1974년부터 전국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시행되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학생, 교원, 시설 및 재정 등의 교육여건을 평준화하여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요한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김영철, 2003). 또한 정책 도입

* 교신저자(sjunglee@dankook.ac.kr)
■ 접수일(2020.10.31.), 심사일(2020.11.10.), 게재확정일(2020.11.29)

초기에 몇 년에 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그 이전과 다른 큰 변화를 겪게 된 고교 입학 정책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인 안착에 들어갔다고 평가받았다.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몇몇 지역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 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학교별 자체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군별로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별로 무작위추첨이나 근거리 강제 배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그 전에 입학시험성적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발생했었던 고교 간 서열 및 고교입시 문제 등의 각종 교육문제를 종식하게 된 것은 분명한 긍정적 효과로 평가받았다(김경근, 2002; 김영철, 2003; 성기선, 2004). 그러나 이처럼 현재까지 46여년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고등학생 선발·배치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 일반계 고교의 확일성, 우수 고교 및 고교선택권 부재, 학생 성적의 '하향평준화' 등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주호, 홍성창, 2001; 김태종 외, 2003; 이수정, 2007 재인용). 물론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정반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았다(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 1995; 김기석, 2004; 성기선, 2004). 이러한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의 '고교다양화 정책1)'을 시행하기도 했고, 고교평준화지역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는 '선지원후추첨제2)'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논쟁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한 이후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이후에 비교적 학교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데 비해(김경근, 2002; 김영철, 2003), 최근 일각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한 이후에 학교 간 성적 격차와 서열이 다시 부활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김학한, 2011; 이두휴, 2014).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서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고교 간 성적 격차와 서열이 다시 커지게 되었기에 원래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 배정으로 인해 학교 간

-
-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강화하고자 한 정책으로 1974년 예술고와 체육고의 신설, 1982년 과학고의 신설, 1990년대 이후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설립에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자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 2) 이 제도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군 내 일부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강제배정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 주려고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학교 간의 성적 격차를 다시 유발하여 학교 서열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 곧, 학교 간 격차를 유발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선지원후추첨제가 추가된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에 관해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서의 학교 선택 기준은 ‘성적’인 반면, 고교평준화지역에서의 학교 선택 기준은 ‘성적 + 그 외 요인들’이고, ‘그 외 요인들’은 통학거리, 대학진학율, 내신관리, 학업분위기,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이 될 수 있는데(박도순, 하봉운, 김언순, 김성기, 성열관, 김미선, 권복희, 2012; 이종태, 이인규, 허은주, 이정옥, 2018), 그들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지원후추첨제로 인해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커지고 학교 서열이 다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선택으로 드러난 것인지, 또는 선호학교가 모두 입학성적이 높은 학교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교평준화 지역 내에서 강제배정 방식으로부터 선지원후추첨제로 전환한 이후에 나타난 학교 간 성적 격차의 분석 결과를 내놓은 연구에서도(김학한, 2011; 배정현, 2012), 이것이 통상적으로 비평준화지역에서 성적의 위계에 따라 나타났던 학교 간 성적 격차의 현상과 과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비평준화지역에서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지역 내 학교 간 성적 격차, 서열 및 지원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고 하였다. 특히 비평준화지역과 고교평준화지역 간의 학교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학교 간 성적 격차의 완화 및 성적의 위계에 따른 학교 서열의 고착화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목적과 성과에 대한 쟁점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당시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준비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고등학교 입시경쟁을 폐지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도입되었다. 특히 심각한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평준화하여 당시 고착화된 고등학교 서열을 완화하고자 하는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김영철, 2003).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시 연합고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되었

고, 학군 내 모집정원만큼 학생들을 한꺼번에 선발하여 학교별로 강제배정하게 된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다(박도순 외, 2012: 11).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부터 전국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는데, 정책 도입 초기 몇 년에 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몇몇 지역에서도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평준화' 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개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인데, 현재는 <표 1>과 같이 37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 중이다.

<표 1>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 과정과 시행 지역

구분	년도	시행 지역
도입 초기	1974학년도	서울, 부산 (2개)
	1975학년도	대구, 인천, 광주 (5개)
추가 확대기	1979학년도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12개)
	1980학년도	원주, 천안, 군산, 이리(현재 익산), 목포, 안동, 진주 (19개)
	1981학년도	성남, 창원 (21개)
일부 지역 해제기	1990학년도	군산, 목포, 안동 해제 (18개)
	1992학년도	춘천, 원주, 이리 해제 (15개)
	1995학년도	천안 해제 (14개)
재확대기	2000학년도	울산, 군산, 익산 (17개)
	2002학년도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23개)
	2004학년도	목포, 여수, 순천 (26개)
	2005학년도	김해 (27개)
	2007학년도	포항 (28개)
	2013학년도	춘천, 원주, 강릉, 광명, 안산, 의정부 (34개)
	2015학년도	용인, 세종 (36개)
2016학년도	천안 (37개)	

*출처: 강대중(2002: 63)을 수정·보완하였고, ()는 정책 적용 지역 누적 수를 나타냄.

많은 연구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결과에 대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상향평준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나, 학교별로 균등하게 학생들을 배정한 결과 학교 간 입학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학교 간 성적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고착화되었던 학교 서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다는 등의 성과를 보고해 왔다(김경근, 2002; 강대중, 2002; 이형빈, 2013).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990년대부터는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성적이 하향화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 왔다. 예컨대,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서는 학급 구성이 이질적인 능력집단으로 구성되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지적 도전감을 주지 못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무의미한 수업이 되어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고(신차균, 2007: 12), 학생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여 동질적인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교육의 수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성기선, 2002),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능력별 집단 편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황여정, 2010: 191).

2. 선지원후추첨제의 도입 목적과 관련 쟁점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거론되는 와중에, 정부는 학교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5·31 교육개혁안(1995, 5, 31)」을 토대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서의 선지원후추첨제 배정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한적이지만 학군 내 일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곧, 교육부는 선지원후추첨제 방식을 도입한 의도를 “현행 평준화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한국경제신문, 1995.8.8.).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지원후추첨제는 시도교육청별 고교평준화지역에 따라 <표 2>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 예컨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지망순위대로 적어내고 나중에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근거리를 적용하는 후추첨제도 있고, 성적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후추첨제도 있으며, 선지원한 학교들을 참고만 할 뿐 성적에 따라 후추첨 배정하는 곳도 있다.

3) 이자형(2016)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방식 및 관련 쟁점 탐구’를 참고하였고, 고입정보포털-시도별입시정보-2021학년도 시도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계획, <http://www.hischool.go.kr/entrance/sido>에 따라 2021학년도 자료로 수정·보완하였다.

<표 2> 2021학년도 일부 시도별 선지원후추첨제 방식

단계 지역	1단계 광역학군 (단일학군)배정 비율	2단계 거주지 학군(지역) 배정 비율	3단계 통합학군(거주지 및 인접지역) 배정 비율	배정 방식
서울 특별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배정(2개교)	학교별 정원의 40% 배정 (2개교)	1-2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40% 학생을 대상으로 1-2단계 지원 사항,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 여건 및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하여 추첨 배정	지망학교 수 제한형 단계별 선지원후추첨
대구 광역시	1,2단계에 앞서 IB 운영교, 교과중점교는 추첨 배정 학교별 모집정원의 50% 배정(2개교)	학교별 모집 정원의 10% 배정(2개교)	1, 2단계에서 배정되지 않은 40% 학생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배정	
경기도	학군내 1~5지망 학교 지원 후 학교별 모집정원의 50% 배정(부천, 광명, 의정부는 100% 배정)	1단계 미배정 학생을 대상으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지망순위를 작성하여 추첨 배정		지망학교 수 확대형 선지원후추첨
대전 광역시	1~5지망 학교 지원 후 학교별 정원의 60% 배정	1단계 미배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40%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 배정		
인천 광역시	거주지 학군군에 속한 전체학교와 공동학교군 내 전체 학교를 지망순위대로 반드시 지원→학교별 정원 미달시 2지망, 3지망... 순으로 배정하고,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망자를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라 성적순으로 배열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정			지망순위 참조형 성적균등제 적용 선지원후추첨
제주특별자치도	지망학교를 순위대로 지원→ 남녀별 석차 순으로 9개 석차 등급 산출→학교별 입학정원을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배정→ 각 등급별 1지망 학생수가 해당 등급 배정 인원 초과될 경우, 무작위추첨 배정			
광주 광역시	선지원추첨배정으로 정원의 20% 배정(2개교)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등급별 추첨배정, 미달 인원은 후지원에서 보충	후지원추첨배정으로 정원의 80% 배정[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배정가능고교 중선택(4~9교)→지원순서에 상관없이 성적등급별 추첨 배정, 지원학교의 배정 불가능시 배정가능고교 중에 임의 배정		지망순위 무관 성적균등제 적용 후추첨방식

이처럼 고교평준화지역에서 다양한 선지원후추첨제 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많

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2020학년도에 75.8%의 학생들이 희망학교에 배정되었고(노컷 뉴스, 2020.2.14.), 경기도의 경우에도 1지망교 배정 비율이 2013~2019학년도에 각각 85.34%, 82.33%, 82.28%, 85.10%, 85.68%, 84.43%, 82.76%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선지원후추첨제는 고교평준화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정 부분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교육개혁위원회, 1998a; 이수정, 2012). 신경석(2005)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학교교육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백병부, 황영정, 성열관(2012)은 서울의 후기 일반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순위에 배정될수록, 그리고 본인이 진학할 학교를 직접 선택할수록 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달리, 이두휴(2014: 87)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초기에 학부모의 학교선택 전략에 따라 학교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초기단계의 쏠림 현상이 고교평준화지역에 새로운 서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100% 순수희망을 반영하는 선지원후추첨제는 쏠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성적분포를 고려하는 혼합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고교 간 격차 탐구

고교평준화 정책 하에서 제한적이거나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주려고 한 ‘선지원후추첨제’가 시행된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예컨대, 김성열, 김기민, 오세희(2009)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병행하는 선지원후추첨제 하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학교 간 학업성적, 학생, 교사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반면, 강호수, 하봉운, 김종규, 김진원(2018)의 연구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 하에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별 교육시설 및 환경, 교육과정, 선호학교의 고른 분포 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강영혜, 박성호, 하봉운, 배정현(2012)에서도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선지원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한 결과, 선호도가 높은 학교와 나머지 학교 간에 신입생의 성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2020학년도에 선지원후추첨제 배정을 처음으로 시행한 강원도의 경우, 75.8%의 학생들이 희망학교에 배정되었으나 학교 간에 선호도 차이로 인하여 특정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노컷 뉴스, 2020.2.14.).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논의들은 대부분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인식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한계가 있다.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와 학교 서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전후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또는 기존에 성적의 위계에 따라 고착화되어 있던 학교의 서열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간 격차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실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교 간 격차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A지역의 학교별 입학성적 자료와 학교별 지원율 자료를 활용하여,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그 이전의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 있었던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성적의 위계에 따른 학교 서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학교 지원율에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가. 분석자료

자료는 최근에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A지역의 25개 일반고를 대상으로 2014~2017학년도 기간동안의 학교별 입학성적과 지원율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중소도시인 A지역이 비평준화시기였던 2014학년도 당시 입학성적에 따른 학교 서열이 고착화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박도순 외, 2012),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학교 간 입학성적, 서열, 지원율에 미친 효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지역에는 2014학년도 당시 자사고 1교, 특성화고 2교, 일반고 26교가 있었고, 특수목적고는 없었다. 일반고(사립 2교, 공립 24교) 가운데 1교는 통학여건이 극심히 불편하여 이후 고교평준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5~2017학년도 사이에 일반고 2교가 추가 설립되었으나, 본 연구는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이후에 고교 간 격차의 변동 추이를 검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2014학년도 당시의 일반고 가운데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용에서 배제된 일반고 1교와 추후 설립된 일반고 2

교를 제외하여 최종 일반고 25교(사립 2교, 공립 23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5교의 학교별 입학성적, 서열과 지원율은 도교육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⁴⁾.

학교별 입학성적은 학교별 전체 입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합하여 입학생 수로 나눈 평균 점수이다. 또한 입학성적을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학교를 구분하여 선지원 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집단 간 입학성적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비평준화시기였던 2014년 당시 A지역은 학교별로 입학성적의 평균점수가 서열화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서열이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별 입학성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2014학년도 학교별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동일한 집단과 학교들을 연도별로 똑같이 적용하여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집단 간 성적의 변동 추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중학교 내신성적의 만점(200점)을 산출하는 기준과 학교 선택 및 지원 방법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연도별 입학성적의 비교가 가능하였다. 학교 지원율은 비평준화시기였던 2014학년도의 경우에는 학교 지원율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2015~2017학년도에는 학군내 1지망 지원율을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A지역⁵⁾을 포함하여 고교평준화지역에서의 1단계 학군내 1지망교는 학생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학군내 1지망교 지원율은 해당학교의 모집정원에 대비하여 학군내 1지망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학교별로 ID를 부여하여 시계열적으로 동일학교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별도로 하였다.

나. 변수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로 학교 간 격차 수준을 알 수 있는 학교별 입학성적, 학교 서열, 그리고 학교 지원율의 세 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학교 간 격차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1) 입학성적에 따른 변수들(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2) 연도에 따른 변수들(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을 상정하였다.

4) 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은 A지역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생산한 것으로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확대에 따른 실증적 효과 분석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2020년 7월 15일~7월 16일에 관련 부서의 자료 사용 승낙을 얻었음을 밝힌다.

5) A지역의 학생 배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학군내 배정으로, 학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일반고 가운데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5개 학교를 지망순위대로 선택하여 지원하고, 2단계는 구역내 배정으로, 학군내 복수 구역 중에서 지원자의 중학교가 소재하는 구역 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망순위대로 배정한다. 1단계 학군내에서 배정이 안 된 학생들에 한해 2단계 구역내 배정을 실시한다. 그러므로, 1단계 학군내 중에서도 1지망교는 학생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별 입학성적은 2014~2017학년도 기간동안 학교별 입학성적의 원점수(만점 200점)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학교 서열은 학교별 입학성적의 위계에 따른 순위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학교 지원율은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입학성적 변수로써, 세 집단은 2014학년도의 학교별 입학성적(만점은 200점)을 기준으로 사분위수에 따라 분류하였다. 상위 집단은 제4분위수에 해당하는 75%(169점 이상~200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고, 중위 집단은 제2, 3분위수에 해당하는 25%~75%(142점 이상 169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교들이며, 하위 집단은 제1분위수에 해당하는 25%(110점 이상~142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교들이다. 중위 집단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집단을 모두 더미변수로 코딩하였다. 연도 변수는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사인 선지원 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2014학년도를 기준으로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의 학교별 입학성적, 서열과 지원율의 변동 값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변수 처리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내용 및 변수처리

변수명		변수내용 및 변수처리
종속변인	학교별 입학성적	각 학교의 입학성적 평균값을 원점수 그대로 사용
	학교 서열	각 학교의 입학성적 평균값이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부여함
	학교 지원율	각 학교의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사용 - 2014학년도 : 학교 지원율, 2015~2017학년도 : 학군내 1지망교 지원율
독립변인	입학성적별 집단	2014학년도 전체 학교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사분위수로 나누어 집단 구분 - 상위 집단 : 제4분위수(169점 이상~200점), 중위 집단 : 제2, 3분위수(142점 이상~169점 미만), 하위 집단 : 제1분위수(110점 이상~142점 미만) - 중위 집단=0,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투입
	연도	2014학년도=0, 2015학년도=1, 2016학년도=2, 2017학년도=3

2. 분석 모형

비평준화지역이었던 A지역에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학교 간 성적 격차, 서열 및 지원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이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Spearman의 서열상관분석을 활용하였다.

첫째,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가 줄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학년도의 학교별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집단들을 연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집단 간 입학성적의 차이에 변동이 나타났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가운데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사후비교분석(Scheffé)를 시행하였다.

둘째,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학교 서열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별로 입학성적에 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상위, 중위, 하위 집단에 따라 학교 서열이 연도별로 지속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 입학성적의 차이보다는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2014~2017학년도의 입학성적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입학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에 1의 서열을, 가장 낮은 학교에 25의 서열을 부여한 후, 학교의 순위 값에 의하여 인접연도 간 상관관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pearman의 서열상관계수인 r_s (rho)를 구하였고, 공식은 다음과 같다.

$$r_s = 1 - \frac{6 \sum d_i^2}{n(n^2 - 1)} \quad \begin{array}{l} n : \text{해당연도 사례수} \\ d_i : \text{학교 } i \text{가 } X \text{년도와 } (X+1) \text{년도에서 받은 순위의 차이} \end{array}$$

셋째,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학교 지원율에 변동이 생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간 학교 지원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가운데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사후비교분석(Scheffé)를 시행하였다.

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처리하였다. <표 4>에는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투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별 입학성적(전체)	25	156.55	9.82	118.73	191.10
상위집단 입학성적	25	167.15	7.76	148.92	191.10
중위집단 입학성적	25	154.87	5.18	143.37	168.13
하위집단 입학성적	25	147.56	4.43	118.73	158.16
학교 서열	25	13.00	7.36	1.00	25.00
학교 지원율	25	95.35	29.06	7.00	160.00
성적별 집단(상위집단=1)	25	.13	.34	.00	1.00
성적별 집단(하위집단=1)	25	.06	.24	.00	1.00

IV. 연구 결과

1.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 변동 추이

비평준화지역이었던 A지역에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이 학교 간 입학성적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2014~2017학년도 연도별 일반고 전체 입학성적의 변동 추이 (단위: 점)

연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2014학년도	25	154.43	19.74	389.57	72.37	118.73	191.10
2015학년도	25	156.98	7.48	55.92	26.75	149.37	176.12
2016학년도	25	157.06	6.51	42.34	23.97	149.11	173.08
2017학년도	25	157.74	5.57	30.99	23.14	148.92	172.06

위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학년도에 비해 2015, 2016, 2017학년도의 일반고 입학성적의 평균값은 154.43점에서 157.74점으로 향상되었고, 학교 간 입학성적의 범위(최대값과 최소값의 격차)는 72.37점에서 23.14점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분산 또한 389.57점에서 30.99점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곧, 2014학년도에 비해 2015, 2016, 2017학년도의 학교 간 성적 격차가 크게 경감된 것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선지원후추첨제가 적용되더라도 학생들이 성적 요인만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이종태 외(2018)의 연구에서처럼 고교평준화지역에서 학교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성적과 그 외의 요인들(통학거리 등)이 있다는 지적을 상기시켜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4학년도의 입학성적에 따라 구분한 상위, 중위, 하위 집단별로 2014학년도에 비해 2015~2017학년도의 입학성적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와 연도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고, 분석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집단에 따른 연도별 입학성적의 변동 추이 (단위: 점)

연도	입학성적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2014학년도	176.89 (8.15)	154.54 (8.41)	128.01 (9.53)
2015학년도	164.93 (8.23)	153.43 (4.84)	154.81 (3.37)
2016학년도	163.70 (7.49)	155.01 (4.43)	153.44 (2.30)
2017학년도	163.09 (7.16)	156.49 (3.03)	153.99 (2.51)

*주: 표의 값은 집단별 입학성적의 평균값이며, ()안은 표준편차임

위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학년도에 비해 2015~2017학년도의 입학성적 평균값은 하위 집단의 경우 25~26점 정도로 크게 올랐고, 중위 집단의 경우 1~2점 정도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상위 집단의 경우는 12~13점 정도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이후에 기존에 상위 집단에 속한 학교를 선택했던 일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중위 집단이나 하위 집단에 속한 학교를 선택하여 이동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다음의 <표 7>은 2014~2017학년도 기간동안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간 입학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연도에 따른 집단 간 입학성적의 차이 비교

연도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2014학년도	집단-간	7717.98	2	3858.99	52.03	.000
	집단-내	1631.62	22	74.17		
	합계	9349.61	24			
2015학년도	집단-간	621.52	2	310.76	9.49	.001
	집단-내	720.47	22	32.75		
	합계	1342.00	24			
2016학년도	집단-간	437.51	2	218.76	8.32	.002
	집단-내	578.72	22	26.31		
	합계	1016.23	24			
2017학년도	집단-간	303.35	2	151.68	7.58	.003
	집단-내	440.41	22	20.02		
	합계	743.76	24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377, 1.905, 2.771, 1.448로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함

다음의 <표 8>은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사후비교분석 결과로써, 2014학년도에는 모든 집단 간에서 입학성적의 차이가 유의하였던 반면에 2015, 2016, 2017 학년도에는 상위와 중위, 상위와 하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중위와 하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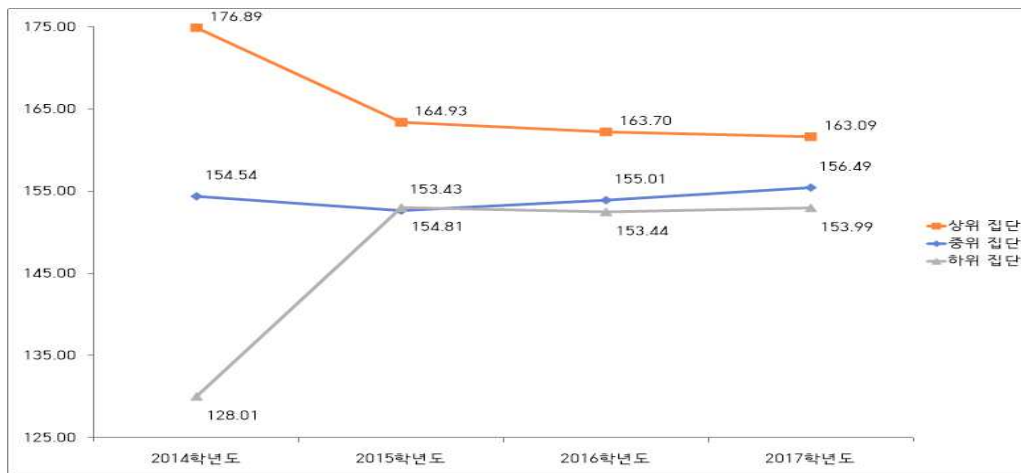
<표 8> 연도에 따른 집단 간 입학성적의 사후비교분석 결과

(단위: 점)

연도	집단 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2014학년도	상위 집단 vs 중위 집단	22.35*	4.10	.000
	상위 집단 vs 하위 집단	48.88*	4.79	.000
	중위 집단 vs 하위 집단	26.53*	4.31	.000

2015학년도	상위 집단 vs 중위 집단	11.50*	2.72	.000
	상위 집단 vs 하위 집단	10.11*	3.18	.002
	중위 집단 vs 하위 집단	-1.38	2.86	.890
2016학년도	상위 집단 vs 중위 집단	8.69*	2.44	.007
	상위 집단 vs 하위 집단	10.26*	2.85	.006
	중위 집단 vs 하위 집단	1.57	2.56	.831
2017학년도	상위 집단 vs 중위 집단	6.60*	2.13	.018
	상위 집단 vs 하위 집단	9.10*	2.49	.005
	중위 집단 vs 하위 집단	2.49	2.24	.547

위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평준화시기였던 2014학년도의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의 입학성적은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상위와 중위 집단 간에는 입학성적의 차이가 유지되었지만, 중위와 하위 집단 간에는 차이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와 중위 집단 간 입학성적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어, 2014학년에 비해 2015~2017학년도의 상위와 중위 집단 간 입학성적의 평균차는 최대 15.75점이나 좁혀졌고, 상위와 하위 집단 간의 평균차 역시 최대 39.78점이나 크게 좁혀졌다. 다음 [그림 1]은 2014~2017학년도 집단 간 입학성적 격차의 변동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2014~2017학년도 집단 간 입학성적 격차의 변동 추이

2. 집단에 따른 연도 간 학교 서열의 일치성 검증

비평준화시기에 고착화되었던 A지역의 학교 서열이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상위, 중위, 하위 집단별 연도 간 학교 서열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집단에 따른 연도 간 학교 서열의 등위상관계수 (n=25)

집단	연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상위 집단	2015학년도	.357		
	2016학년도	.393	.929**	
	2017학년도	.429	.964**	.964**
중위 집단	2015학년도	.357		
	2016학년도	.287	.580*	
	2017학년도	.413	.448	.622*
하위 집단	2015학년도	-.086		
	2016학년도	-.657	.771	
	2017학년도	-.543	.600	.714

위의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간에는 모든 집단에서 연도 간 학교 서열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에는 A지역에 선지원 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시기으로써 상위, 중위, 하위 집단의 학교 서열이 2014학년도와의 일치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집단 간 학교 서열에 큰 변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위와 중위 집단에서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간에 집단별 학교 서열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이는 2015학년도에 형성된 학교 서열이 이후 3년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위 집단에서는 연도 간 학교 서열의 상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각 학교들이 본교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배정현(2012)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지만, 단지 비평준화시기였을 당시에 입학성적이 중간 이상이었던 상위와 중위 집단에 속한 학교들에서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입학성적이 낮았던 하위 집단에 속한 학교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의 도입 직후에 형성된 학교 서열이 이후에 유지되었던 점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의한 학교 간 내신결과의 차별적 정성평가가 학교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연도에 따른 집단 간 학교 지원율의 변동 추이 검정

비평준화시기였던 2014학년도에 비해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인 2015~2017학년도에 학교 지원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2014~2017학년도 연도별 일반고 전체 학교 지원율의 변동 추이 (단위: %)

연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분산	범위	최소값	최대값
2014학년도	25	98.28	7.04	49.54	30	72	102
2015학년도	25	91.88	42.41	1798.78	139	7	146
2016학년도	25	96.92	35.76	1278.83	146	14	160
2017학년도	25	94.32	31.04	963.64	125	11	136

위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2017학년도의 학교 지원율 평균값은 모두 100% 미만으로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비평준화시기였던 2014학년도의 경우,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학교 지원율 평균값이 98.28%라 하더라도 학교 지원율이 100%가 넘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었다. 다만,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인 2015~2017학년도의 경우, 지원자 전원은 입학성적에 상관없이 학군내 일반고에 합격하였고, 입학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선택권을 활용하여 본인이 지망하기를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5학년도 이후 입학성적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선택 하에서 나타났던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표준편차값을 살펴본 결과, 2014학년도에 비해 2015학년도에는 7.04%에서 42.41%로 갑자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의 도입 직후에 갑자기 증가한 지원율의 격차는 2016, 2017학년도에는 다시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비평준화시기에는 성적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한정되어 있어 학교 선택에 제한적이었지만,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교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한 초기에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전의 지역 명문 고등학교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두휴(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위, 중위, 하위 집단별 학교 지원율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집단에 따른 연도별 학교 지원율의 변동 추이 (단위: %)

연도	학교 지원율		
	상위 집단	중위 집단	하위 집단
2014학년도	100.43 (0.53)	100.42 (0.51)	91.50 (12.82)
2015학년도	133.86 (12.19)	89.92 (28.68)	46.83 (41.65)
2016학년도	130.14 (15.17)	97.83 (19.35)	56.33 (38.92)
2017학년도	116.57 (17.77)	96.58 (22.19)	63.83 (36.65)

*주: 표의 값은 집단별 입학성적의 평균값이며, ()안은 표준편차임

위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학년도의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간 학교 지원율 평균값의 격차는 최대 8.93%에 불과하였지만,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한 직후인 2015학년도에는 갑자기 지원율의 격차가 최대 87.03%로 격차가 벌어졌고, 이후 2016학년도에는 최대 73.81%, 2017학년도에는 최대 52.74%로 다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집단별 학교 지원율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상위 집단은 2015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에 17.29%가 떨어졌으나, 중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각각 6.66%, 17%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2014학년도에 비해 2015~2017학년도에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간 학교 지원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연도에 따른 집단 간 학교 지원율의 차이 비교

연도	구분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2014학년도	집단-간	362.91	2	181.46	4.83	.018
	집단-내	826.13	22	37.55		
	합계	1189.04	24			
2015학년도	집단-간	24556.03	2	12278.02	14.51	.00
	집단-내	18614.61	22	846.12		
	합계	43170.64	24			
2016학년도	집단-간	17619.98	2	8809.99	14.83	.00
	집단-내	13071.86	22	594.18		
	합계	30691.84	24			
2017학년도	집단-간	9103.98	2	4551.99	7.14	.004
	집단-내	14023.46	22	637.43		
	합계	23127.4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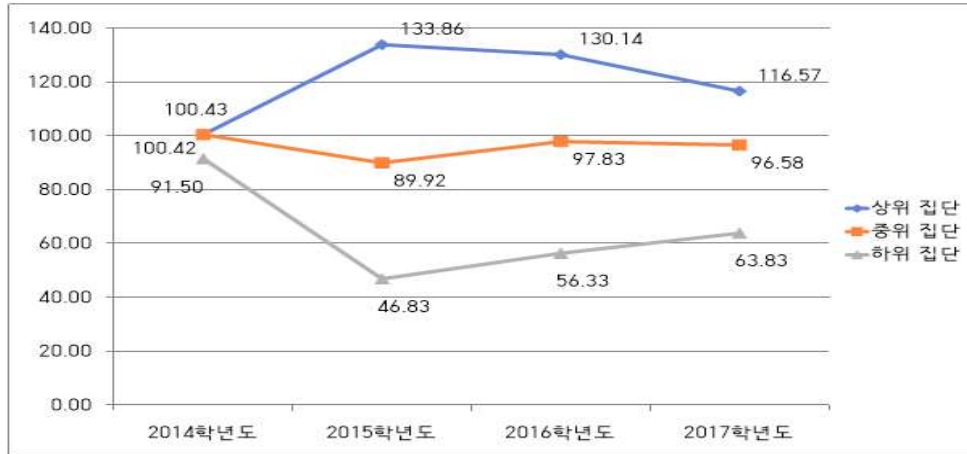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은 .377, 1.905, 2.771, 1.448로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함

앞의 <표 12>에서 보듯이, 상위, 중위, 하위 집단 간 학교 지원율의 차이는 2014~2017 학년도 내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 13>과 같이 사후비교분석(Scheffé)을 실시하였다.

<표 13> 연도에 따른 집단 간 학교 지원율의 사후비교분석 결과

연도	집단 간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2014학년도	상위집단 vs 중위집단	0.01	2.91	1
	상위집단 vs 하위집단	8.93	3.41	.051
	중위집단 vs 하위집단	8.92*	3.06	.028
2015학년도	상위집단 vs 중위집단	43.94*	13.83	.016
	상위집단 vs 하위집단	87.02*	16.18	0
	중위집단 vs 하위집단	43.08*	14.54	.025
2016학년도	상위집단 vs 중위집단	32.31*	11.59	.036
	상위집단 vs 하위집단	73.81*	13.56	0
	중위집단 vs 하위집단	41.50*	12.19	.01
2017학년도	상위집단 vs 중위집단	19.99	12.01	.271
	상위집단 vs 하위집단	52.74*	14.05	.004
	중위집단 vs 하위집단	32.75	12.62	.053

위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학년도에는 중위와 하위 집단 간에만 지원율의 차이가 있었고, 2015, 2016학년도에는 모든 집단 간에 지원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학년도에는 상위와 하위 집단 간에만 지원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학년도의 경우, 지역의 일반고 모집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비평준화지역의 특성상, 상위→중위→하위 집단에 포함된 학교 순으로 학생이 선발되면서 마지막에 하위 집단에 속하는 학교에 지원할 학생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직후인 2015학년도에는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간 여건이 평준화되어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가 다시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14~2017학년도의 학교 지원율의 변동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2014~2017학년도 집단 간 학교 지원율 격차의 변동 추이

V. 결론

본 연구는 비평준화지역에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학교 서열이 변동되었는지, 또는 학교 지원율의 격차가 변동되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A지역에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고, 기존에 성적에 따라 고착화되었던 학교 간 서열은 변동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2014~2017학년도 기간동안 A지역에 행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교육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학교 간 성적 격차를 완화하고자 의도했던 고교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학교별 입학성적의 평균점수가 오른 것으로 보아 하향평준화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선지원후추첨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학교 간 입학성적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선지원후추첨제가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하면서도 고교평준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A지역에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직후에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는 갑자기 증가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격차가 다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평준화시기에는 ‘성적’ 때문에 지원이 어려웠던 특정 학교

에 정책의 도입과 동시에 성적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변함으로써 다수의 지원자가 일시적으로 쏠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취지대로 학교 간 교육여건이 평준화됨을 학생과 학부모가 비로소 인식하게 되고, '성적과 그 외의 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그에 기초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은 학교 간 성적 격차와 학교 서열의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것은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던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도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자 했던 선지원후추첨제의 시도가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선지원후추첨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직후에 학교 간 지원율의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격차가 다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 간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평준화됨으로써, 기존에 성적만으로 학교를 선택하던 양상이 바뀌어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일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이후에 나타난 고교 간 격차의 변동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선지원후추첨제에 기반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과 고교 간 격차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대중. (2002).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교육비평**, 8, 56-74.
- 강영혜, 박성호, 하봉운, 배정현. (2012). 경기도 고교평준화지역 배정방법 개선 연구: 수원, 성남, 부천, 안양권, 고양학군을 중심으로. (수탁연구 CR 2012-01). 한국교육개발원.
- 강호수, 하봉운, 김종규, 김진원. (2018). 경기도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 방안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현안보고 2018-16).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 교육개혁위원회. (1998a). 교육개혁의 성공전략.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근. (2002).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교육사회학연구**, 12(3), 1-23.
- 김기석. (2004). 실증적 분석 연구를 통하여 평준화 효과의 진실을 밝히자-최근 교육정책 논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KEDI Position Paper**. 1(3).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열, 김기민, 오세희. (2009).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간 질적 차이에 대한 분석: 경남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8(1), 81-110.
- 김영철, 김주훈, 이인효, 최돈민. (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교육학연구**, 6, 253-275.
- 김태중 외. (2003).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개혁연구소
- 김학한. (2011). 학교선택제와 고교서열체제의 등장. **교육비평**, (30), 105-122.
- 노컷 뉴스. (2020.2.14.). 선지원후추첨 학교 배정 방식, 학교 서열화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89623>에서 2020.09.02. 인출.
- 박도순, 하봉운, 김언순, 김성기, 성열관, 김미선, 권복희. (2012). 경기도 용인지역 고교 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경기: 경기도교육청.
- 배정현. (2012). 학교선택제 도입과 학력격차 변동 추세: 수원시 경우. 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백병부, 황여정, 성열관. (2012). 고교선택제가 배정결과만족도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4), 141-170.
- 성기선. (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2(3), 121-135.
- 성기선. (200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3)
- 신경석. (2005). 고등학교 선지원후추첨제도 효과성 연구 : 학교선택권과 교육만족도의 측면에서. 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차균. (2007). 고교 평준화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교육논총**, 27(1), 1-32.

- 이두휴. (2014).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학생의 쏠림현상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1(3), 61-91.
- 이수정. (2007).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25(4), 455-484.
- 이수정. (2012). 국제화 시대의 교육개혁 정책과 정책 차용 현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4), 505-533.
- 이자형. (2016).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정방식 및 관련 쟁점 탐구. **중등교육연구**, 64(3), 725-749.
- 이종태, 이인규, 허은주, 이정옥. (2018). 경기도 화성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경기: 경기도교육청.
- 이주호, 홍성창. (2001). 학교 대 과외: 한국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 이주호. (200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237-269.
- 이형빈. (2013). 고교 평준화의 위기와 평준화 개념의 재정립. **교육비평**, 31, 10-36.
- 한국경제신문. (1995.8.8.). 선지원후추첨, 고교 내년 시범실시...교육개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5080801731>에서 2020.10.14. 인출.
- 황여정. (2010). 능력별 집단편성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4), 191-222.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on the Gap of High Schools in City A.

Hee-sook Han(Dankook University)

Soojeong Lee(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how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influenced the gap of high schools in City A.

Data were drawn from K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One-way ANOVA,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on the gap of high schools in City A.

Findings showed that the gap of schools' entrance scores of 2015~2017 was decreased more, the mean of the schools' entrance scores in the area went up higher, the schools' ranking fixed in 2014 and before was changed a lot more, but the gap of school application rates were increased more just after introducing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than in 2014, and decreased gradually and constantly in 2016 and 2017.

The findings imply that the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is very effective in decreasing the gap of schools' entrance scores, changing the fixed schools' ranking, and ensuring students' and parents' right of school choice.

[Key words] Equalization Policy, Application-forward-assignment-afterward system, the gap of high schools' scores, ranking, application rate